

인민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가신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근 평안북도, 량강도, 함경북도, 강원도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물결사나운 배길과 험한 갈랑길을 헤치시며 오르신 신도와 흙먼지 날리는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 온포휴양소와 청진가방공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길에서 인민사랑의 감동적인 화폭들이 펼쳐져 있다.

특지와 련어진 신도군을 현지지도하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섬사람들이 도시부럽지 않은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근인민병원과 학교들을 훌륭히 건설하도록 필요한 자재보장대책을 즉석에서 세워주시였다. 신의주방직공장을 찾으시어서는 공장장속생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훌륭한 합숙을 지어주겠다고 하시며 그 러전도 잠아주시였고 삼지

연감자가루생산공장에 가시어서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참담하게 이바지하는 공장장으로 되여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도 남기시였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가장 큰 기쁨, 제일 큰 만족은 인민의 행복을 위한 창조물이 마련되는것이다.

굴지의 련어생산지로서 전변된 락산바다련어양어사업소를 돌아보시며 물고기들 받아안고 기뻐할 인민들을 그려보시는듯 바닷가 웃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인민들에게 한가지라도 더 안겨주게 된것이 너무나도 기쁘시며 그이께서는 그물우리양어장의 련어들을 보고 또 보시

며 대서양련어와 가공품들을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 집중적으로 보내주어 인민들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일마천부터 봉사를 시작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는 그이의 사랑속에 마련된 련어와 칠갑살어를 비롯한 고급어족들이 식탁에 올라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그이께서는 염분진지기를 인민들의 훌륭한 문화휴식지로 이채롭게 꾸리기 위한 건설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였으며 온포휴양소를 찾으시고는 판리운영실태와 형편을 알아보시고 앞

로 우리 나라 온천휴양소의 본보기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성군 증평리에 건설할 대규모의 남새온실농장 부지를 현지에서 료해하시고 남새온실농장건설전망계획을 밝혀주시였다.

광활한 옥토를 바라보시며 여기에 100정보의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면 멋있을것이라고, 이만한 온실면적이면 도내인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하나하나 찾아할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더없이 만족해하신 그이이시였다.

하시는 말씀마다 인민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어디에 가시어셔도 인민, 그 무엇을 보시어도 먼

저 인민들 생각뿐이시였다. 그의 마음속 첫 자리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고 그의 심중에는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열정이 짙게 있었다.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인민들은 엄격한 검열관, 심사관이며 인민들의 평가속에 제품의 끊임없는 질적비약을 이룩할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하시였다.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의 절대적기준을 인민의 요구와 평가로 정하신것이였다.

언제인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일군들이 고생을 하여서라도 인민들을 금방씩에 얹혀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

을 천품으로 지니신분이시기에 인민을 문명의 주인공으로 내세우시기 위하여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창조와 건설의 기적을 다발적으로, 번발적으로 안아오시며 헌신의 로고를 바치시는것이였다.

예로부터 삼복더위에는 소불도 구불어든다고 하였고 삼복기간에는 입술에 물은 밭알도 무겁다는 말이 전해지고있다. 삼복의 더위를 이겨내기가 몹시 힘겹기에 사람들이 피서지와 휴양지를 찾아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그러나 강철도 견디는 인민의 무더위속에서도 경에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길은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한여름의 무더위속을 헤치시

며 멀고 험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도 자신의 고생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보람있는 일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그이는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 인민의 아버지이시다.

그이의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정처에 감복한 외국인들도 《김정은각각는 인민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가는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인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김정은령도자의 모습에서 삼복의 더위를 이겨내기가 몹시 힘겹기에 사람들이 피서지와 휴양지를 찾아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그러나 강철도 견디는 인민의 무더위속에서도 경에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길은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라고 격찬하였다.

인민을 마음속에 안아오시고 걸으시는 그이의 헌신의 길, 열사복무의 길에서 행복에 겨워있는 인민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따라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사기자 고성호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락산바다련어양어사업소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한 《분향기》 화장품들

해수욕장을 찾으시고

주제102(2013)년 5월 어느날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마진해수욕장을 찾으시였다. 해수욕장에 어떤 봉사시설들이 있으며 그 리용을 어떻게 하고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해수욕장으로 합흥시뿐아니라 평양시에서도 해수욕을 하러 온다는데 대하여 아시고 지금 해수욕장에 있는 휴양객들을 가지고서는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는것만큼 개선할 때 수용능력이 큰 현대적인 휴양객들을 새로 더 꾸려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해안선을 바라보시면서 해일이 어떠한지 들어오는가고 물으신 그이께서는 이 해수욕장은 날마다기때문에 해일피해를 받을수 있는것만큼 그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미리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누구도 생각 못한 해가림대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건설중에 있는 문수물놀이장을 또다시 찾으시였는 주제102(2013)년 9월 어느날이였다.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던 그이께서는 문수물놀이장의 한곳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여기에 해가림대를 설치해야겠다고 하시였다. 물놀이장의 천정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채광이 잘되어 여름에는 몹시 더울수 있다고, 햇빛을 막을수 있는 해가림대를 설치해주어 인민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나와서 그늘에서 휴식도 하게 해야 한다고 누구도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를 대책하도록 하시였다.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하시하는 그이께서 물놀이장을 리용하게 될 인민들이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느낄때도 길이 헤아리고 조치하신것이였다.

본사기자

승리의 전통은 영원하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을 맞으며 평양에서 제5차 전국로병대회가 진행되였다.

조국수호전에서 빛나는 군공을 세운 전쟁로병들을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극진히 아끼고 내세우시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그들에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의 이름으로 축하문도 보내주시였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전승절을 세운 경축하도록 하시고 로병대회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하시겠다는 전쟁로병들을 축하해주고 그들의 삶을 빛내여 주며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의 투쟁정신으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새 세대들을 튼튼히 무장시켜 최후승리를 향한 장엄한 투쟁으로 불리워키기 위해서이다.

돌이켜보면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갓 해방된 조선인민과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공화국에 있어서 조국해방전쟁은 실로 희생을 전제하였으 며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사생결단의 싸움이었다.

보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 이 전쟁에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군

제 뭉쳐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 하였으며 세계전쟁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승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그러했지만 전후복구건설시기를 비롯한 혁명의 년대기마다 각이한 초소들에서 기수가 되어 많은 공로를 세운 전쟁로병들의 숭고한 정신과 그들이 조국앞에 세운 도덕의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도 생각하며 존경하고 귀중히 여기고, 사회적으로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잘 대우해주어 그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참가자라는 긍지를 가지고 자기의 한생을 빛나게 총화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시며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신 경에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를 배경으로 제

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며 대표들에게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들인 전쟁로병들이 로당위원장하며 후대들의 심장마다에 1950년대 영웅전사들이 지녔던 조국수호, 혁명보위정신을 심어주는 훌륭한 스승, 교양자로 생의 순간순간을 빛내이데 대하여 말씀하신것이였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한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은 오늘 공화국을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적국의 지위에 올려세운 귀중한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펼쳐나선 전제군대와 인민의 진군을 떠밀어주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본받는 전사화적인 기풍과 관습속에 전쟁로병들은 후대들에게 신념의 대, 총정의 바통을 이어주고 전제군대와 인민은 전쟁로병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공화국을 세게가 우리러보는 친화제일강국, 사회주의락원으로 일떠

대가 있고 후대들에게 넘겨준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가 있기에 오늘의 행복과 끝없이 강성번영하는 조국이 있는것이였다.

백두의 혁명정신과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절세위인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나아가는 추세조선의 승리의 전통은 영원하다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전승미



겨래의 통일변명을 위한 길에 생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속에는 남조선의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도 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민족공동의 변명을 위한 길에 남긴 그의 자취는 열렬한 민족애와 통일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덕망과 의리에 의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자욱으로 남게 되였다.

인생의 황혼기에 여생을 통일과 민족공동의 변명을 위한 북남협력사업에 바치는것은 그의 부친인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한기담의 소망이였다. 민족적정성이 있고 통일의지가 있다면 대자부라라고 해도 단합하여 조국통일의 길에서 손잡고 함께 나갈것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경륜에 공감하였던 그는 1998년 6월 북핵길을 단행하였다. 그리운 고향에도 가보았고 친척들과도 만났으며 금강산과 묘향산도 편답하였다. 골짜기 보낸 련정이고 감격스러운 날이였다. 그는 내친걸음을 더는 멈출수 없었고 얼마후 다시금 평양행을 결단하게 되였다.

그해 10월이였다. 어느날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평양에 체류중인 그를 만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80고령인 그의 신상을 헤아리시어 체류기간 불편한점은 없었는가, 다리를 불편하게 쓰시는것 같은데 어떻게 되여 그렇게 되였는가도 자상히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정주영선생이 배방이 세고 한번 하라고 하는 마음이면 끝까지 내미는 성미를

위대한 장군님의 넓은신 도량과 용단에 의하여 그해 11월 동해의 푸른 물결을 헤가르며 남녘의 관광선을 이금강산관광의 첫 등고리를 올림으로써 북남경제협력의 물고기가 트이게 되였다.

해를 넘기며 많은 남녘인민들이 이금강산에서의 관광길을 이어가 단란함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자고, 나이 많은 정주영선생이 가운데 서야 한다시며 그의 손을 꼭 잡으신채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맺은 정이 깊고 그의 뜻과 가르치심대

로 민족공동의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에 심혼을 다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의 사망을 예석해하시며 유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내시였으며 현지를 방문하는 공화국의 조의대표단을 통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시였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위

의 변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사망과 관련하여 민족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한번 잘해보자고 했는데 가까운 사람이 갔다고 못내 서운해하시며 그의 맘과 노력의 승배인 금강산에서 추모회를 열도록 하시고 비도 세우도록 일이 조치하시였다.

현대관계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정주영, 정몽헌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 선임자들을 회고하시며 변명하는 현대가 되라고 고무도 하고 기업활동과 북남경제협력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

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두터운 믿음과 대대같은 덕망, 숭고한 민족애에 의하여 금강산은 통일애의 명산으로, 개성공업지구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는 6.15시대의 옥동자로 겨래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그룹의 선임자들에게 들려주신 크나큰 믿음과 의리, 민족의 화해와

있으며 현대일에게 배부신 믿음과 정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음을 가슴쓰겁게 절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서거 3돐에 즈음하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추모화환과 조의문을 보내어왔을 때에는 그에게 감사편지를 보내시여 정주영, 정몽헌선생들이 민족과 통일을 위한 길에 남긴 애국적소행을 온 겨래는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현정은회장선생의 사업에서 언제나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신 경에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경에하는 원수님은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화같은 민족애를 지니신 민족의 아버지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였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변명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함께 나아가시려는 확고한 통일의지와 숭고한 동포애, 넓은 도량과 포용력, 대법한 구상을 지니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변명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고 온 민족이 애국의 길에서 현대일가와 인연을 맺고 두터이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다시 비추게 되

장혜련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주신 믿음과 은정

평양랭면, 남녘손님들을 기다린다

* 라속경 옥류관 기사장과의 대담 *

평양랭면은 14세기를 전후한 오랜 옛날부터 인민들이 즐겨먹는 민족음식으로 되었다. 이 시기 오늘날의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는 메밀로 만드는 여러가지 국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틀어 평양랭면이라고 불렀다.

중국의 탕면, 짜장면, 이 팔리아의 마카로니 등 국제적으로 국물을 약간 붓고 사리를 담은 다음 꾸미고 고명을 놓고 국물을 마저 붓는다.

평양랭면은 마는 방법도 독특하게 시원함을 주는 늦게 접어 국물을 약간 붓고 사리를 담은 다음 꾸미고 고명을 놓고 국물을 마저 붓는다.

평양랭면은 먹는 방법도 알아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메밀국수를 먹을 때 식초를 국수발에 친 다음 옥수에 말아먹어야 제맛이 나며 랭면에 양념장을 치면 마늘과 파뿌리새박에 나지 않으므로 간장과 식초만을 쳐야 한다.

우리는 전통적인 평양랭면의 고유한 맛과 향취를 더 잘 살리기 위해 탐구와 실험을 거듭하면서 그 조리법을 과학적으로 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평양랭면의 질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요구》, 《자동호흡식옥수제조장치와 제조방법》, 《국수가공



우리 옥류관의 평양랭면이 소문이 나게 된것은 평양랭면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 나가기때문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국수원료가 좋아야 한다. 평양랭면은 순 메밀가루로 만들어야 구수하고 제맛이 난다. 그래서 평양순면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우리 옥류관에서는 순 메밀로 국수를 만든다. 이렇게 만든 메밀국수오리는 지나치게 질기지도 않고 먹기에 맞춘다.

우리는 전통적인 평양랭면의 고유한 맛과 향취를 더 잘 살리기 위해 탐구와 실험을 거듭하면서 그 조리법을 과학적으로 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평양랭면의 질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요구》, 《자동호흡식옥수제조장치와 제조방법》, 《국수가공

의 과학화와 가공설비의 현대화》 등 우리 요리사들이 받은 수많은 발명 및 창의 고안증서들에는 어떻게 하면 맛 좋고 영양가 높은 평양랭면을 더 잘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하겠는가 하는 일념으로 탐구와 열정을 바친 이들의 숨은 노력이 숨겨져 있다.

기자: 옥류관의 평양랭면은 공화국만이 아니라 남조선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 속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라속경: 지난 시기 우리 옥류관을 찾은 남조선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일본의 프로레스링선수였던 이노기 간지선생은 우리 옥류관에서 평양랭면《신기록》을 세웠고 남조선과 해외의 수많은 동포들이 와서 평양랭면을 맛보고 갔다.

그들은 한결같이 《조선민족의 자랑》, 《최고의 맛》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지난 4월 27일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남조선의 문재인대통령에게 평양의 옥

류관 랭면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옥류관의 요리사가 현지에서 직접 만든 평양랭면이 역사적인 북남수회 상봉과 회담을 환영하는 뜻깊은 만찬에 올라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기자: 옥류관의 평양랭면은 공화국만이 아니라 남조선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 속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라속경: 지난 시기 우리 옥류관을 찾은 남조선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일본의 프로레스링선수였던 이노기 간지선생은 우리 옥류관에서 평양랭면《신기록》을 세웠고 남조선과 해외의 수많은 동포들이 와서 평양랭면을 맛보고 갔다.

그들은 한결같이 《조선민족의 자랑》, 《최고의 맛》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지난 4월 27일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남조선의 문재인대통령에게 평양의 옥

류관 랭면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옥류관의 요리사가 현지에서 직접 만든 평양랭면이 역사적인 북남수회 상봉과 회담을 환영하는 뜻깊은 만찬에 올라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기자: 옥류관의 평양랭면은 공화국만이 아니라 남조선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 속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라속경: 지난 시기 우리 옥류관을 찾은 남조선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일본의 프로레스링선수였던 이노기 간지선생은 우리 옥류관에서 평양랭면《신기록》을 세웠고 남조선과 해외의 수많은 동포들이 와서 평양랭면을 맛보고 갔다.

그들은 한결같이 《조선민족의 자랑》, 《최고의 맛》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지난 4월 27일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남조선의 문재인대통령에게 평양의 옥

류관 랭면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옥류관의 요리사가 현지에서 직접 만든 평양랭면이 역사적인 북남수회 상봉과 회담을 환영하는 뜻깊은 만찬에 올라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기자: 옥류관의 평양랭면은 공화국만이 아니라 남조선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 속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라속경: 지난 시기 우리 옥류관을 찾은 남조선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일본의 프로레스링선수였던 이노기 간지선생은 우리 옥류관에서 평양랭면《신기록》을 세웠고 남조선과 해외의 수많은 동포들이 와서 평양랭면을 맛보고 갔다.

그들은 한결같이 《조선민족의 자랑》, 《최고의 맛》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지난 4월 27일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남조선의 문재인대통령에게 평양의 옥

류수 없는 하나이다. 겨레 누구나 간직하고있는 민족성, 조선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세계민방에 더 높이 떨치려는 애국애족의 마음만 있으면 능히 민족적화해와 단합도 이루고 평화변역의 밝은 메일이 앞당겨올 수 있다고 본다.

북남관계가 즐거차게 발전하여 남북동포들이 너도나도 풍지풍인 이곳 옥류관에 와서 대동강의 경치를 부감하며 평양랭면을 마음껏 들켜 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남북동포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여기 옥류관에 와서 평양랭면을 마음껏 들켜, 시원한 평양랭면이 당신들을 기다리고있다고.



평양랭면이 소문이 나게 된것은 평양랭면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 나가기때문이라고 본다.



평양랭면이 소문이 나게 된것은 평양랭면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 나가기때문이라고 본다.

《비단공주》의 흥성

조국에 체류하고있던 우리는 얼마전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노동자합숙을 참관하는 기회를 가졌다. 대동강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합숙은 종합적인 편의시설과 외관으로 편견없이 볼 때 건물외벽에 《노동자합숙》이라는 글씨가 큼직하게 붙여져 있었다. 합숙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품과 노력, 너무나도 깊고 따뜻한 정과 사랑이 깃들여있음을 나는 참관을 통하여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멋들어진 꾸러진 집에서 비단실 뽀는 처녀들이 살고있으니 이 공장합숙은 《비단공주》들의 궁전이라고 나는 나름대로 명명해보았다. 평범한 노동자들을 위해 그렇듯 큰 품을 들인다는것이 나에게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느껴졌다. 처녀들의 심리에 맞게 연분홍색과 미색이 조화를 이루고 화려한 꽃들로 장식되어 이따기꽃을 피우는가 하면 체육 및 오락실에서는 열띤 운동이 타구경기가 한창이 있었다. 비단실을 잇던 날엔 솜씨로 번개같이 타구공을 넘기며 승부를 겨루고난 처녀들이 시원한 청량 음료를 들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볼수록 광명적이었다. 어디선가 맛있는 음식냄새가 유다면 정서를 자아냈는데 알고 보니 요리실습실에서 풍기는 것이었다. 요리실습실에서 갖가지 요리 만드는 처녀들의 흥겨운 모습이 볼만했다. 노동자합숙에서 제일로 흥성이는 곳이 바로 요리실습실이라고 한다.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들을 세손으로 만든 합숙생처녀들이 저마음로 조리솜씨를 자랑하곤 한다고 동행한 일군이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서툰 솜씨로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던 처녀들의 수준이 얼마나 눈에 띄게 달라지는지 지금은 요리사들도 울고 갈 정도라고 한다. 수습개호실에서 내놓는 로리는 저마음로 독특한 맛과 멋이 있다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정든 집에 보금자리를 편 후부터 합숙생처녀들은 나날이 더 교와친다고 한다. 나라의 은정, 로동자의 궁지, 처녀시절의 아름다움을 사무치도록 새겨주는 정든 집에서 합숙생처녀들, 로동자궁전의 주인들의 하루하루는 이렇듯 행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속에 즐겁게 흐르고있다.

거기다가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원격대학교육까지 받는다니 더욱 놀라웠다.

우리는 3층 6호실에 들러보았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호실이라고 나는 나름대로 명명해보았다.

마침 호실에 있던 처녀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지난해 6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혁신자라고 한다. 처녀들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찾은 호실의 주인이라는 남다른 긍지와 영광을 안고있다고 하면서 입사하던 날에 있는 일 이야기해주었다.

《입사하던 날 우리 3층 6호실 로물에서는 합숙생처녀들의 발걸음은 꿀같은 물결이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우리 방을 찾은 동무들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찾아오셨던 침대를 쓸고 또 쓸어보며 그 자리에 앉아 사진도 찍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걱정이 없지 않았습니다. 저러다 따뜻한 사랑어린 귀중한 침대가 닳아지지 않을까해서 말입니다. 호호...》

침대를 쓸어보는 손동작까지 하면서 털어놓는 처녀의 《걱정거리》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어느날이었다고 한다. 문득 어린 양성공처녀가 흥미진진하게 그에게 물었다는 것이다.

《언니, 언제 시집가요?》 그 말뜻이 무엇인지 미처 깨달을새도 없이 양성공처녀가 또다시 조잘거렸다고 한다.

《나도 6년분 인민경제계획을 하고 이 침대의 주인이 되고싶어서요.》 거기에 통명스럽게 《난 시집 안 가!》하고 대답했다는 처녀의 말이 우리 일행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우리의 웃음이 채 사라지지 않았는데 다시금 울리는 처녀의 말. 《저는 솔직히 그 동무가 부러웠습니다. 저보다 한참 동생이니까 이 궁전에서 더 오래 살지 않겠습니까.》 어느 방을 가나 처녀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았다.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의 아버지 경에하는 김정원수님이십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노동자합숙, 《비단공주》들이 사는 사랑의 궁전을 돌아보면서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이 세상에 여성이라는 한가지 이유로 하여 천대받고 멸시받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일본에서 여성들이 사회적약자의 처지에 있고 낮은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가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여성들이라고 한다.

오죽했으면 일본의 어느 한 여성이 《우리는 여전히 19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유고야 쓴 장편소설 《노르담대사원》의 주인공 에스메랄다와 뒤마의 장편소설 《동백꽃아기씨》에 나오는 마르그리트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고 개탄했겠는가. 하지만 조국의 여성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공장이 그 누구의 개인적인 리윤추구를 위한 곳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장소로 되어있고 국가의 온갖 혜택속에 즐겁고 자랑찬 로동생활을 해가라는 여성 로동자들의 희열에 넘친 모습은 조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로동자합숙, 그것은 그대로 인민들에게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온갖 혜택을 돌려주는 조선식사회주의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재중동포 김수영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의 하나이다. 우리 민족은 장구한 역사적기단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말과 글을 쓰면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온 단일민족이며 조선어는 오랜 역사적부리와 우수한 구조적특성을 가진 세상에 자랑할만한 언어이다. 조선사람으로 태어나 조선어를 연구하는것을 더없는 긍지로 여기고 한생을 바쳐가는 언어학자들속에는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연구사인 권중성선생도 있다.

그가 조선어에 대한 연구를 한지는 어언 50여년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를 얹은 70대의 로학자, 그가 조선어연구에 한생을 바쳐가고있는데는 어떤 사연이 깃들여있는 것인가.

그는 조국이 해방되던 해에 일본 효고현에서 태어났다. 조국은 해방되었지만 나라없던 그 시절 살길을 찾아 현해탄을 건너야 했던 부모들의 고통은 이억방에서 태어난 그 자식들에게도 이어졌다.

권중성선생의 5형제는 늘쌍배를 곱아야 했고 집안집에서 오가는 비바람, 눈바람을 다 맞아야 했다. 재일본조선인들의 권리를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던 그의 아버지는 1955년 5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가 결성되자 지부위원장으로, 현본부위원장으로 사업하면서 조국과 총련을 위한 애국사업에 발벗고 나섰다.

권중성선생과 형제들은 조선학교에 다니며 우리 글을 마음껏 배우고 조선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우리 글을 한자한자 익히기며 공부할 때의 기쁨은 어린 가슴을 뿌듯하게 해주었다. 권중성선생이 13살

한 민족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음이 풍부하고 말소리윙글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표현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정교한 조선어, 조선말을 가지고서는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자유로이 발음할 수 없다. 어떤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조선의 글자는 세계의 다른 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있다.》, 《만일 말과 글로 한 민족의 문화적 도를 전한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문화의 창고에 비견될 것이다. 조선글자는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며 표현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리 글

한 민족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음이 풍부하고 말소리윙글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표현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정교한 조선어, 조선말을 가지고서는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자유로이 발음할 수 없다. 어떤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조선의 글자는 세계의 다른 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있다.》, 《만일 말과 글로 한 민족의 문화적 도를 전한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문화의 창고에 비견될 것이다. 조선글자는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며 표현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리 글

한 민족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음이 풍부하고 말소리윙글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표현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정교한 조선어, 조선말을 가지고서는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자유로이 발음할 수 없다. 어떤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조선의 글자는 세계의 다른 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있다.》, 《만일 말과 글로 한 민족의 문화적 도를 전한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문화의 창고에 비견될 것이다. 조선글자는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며 표현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리 글

한 민족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음이 풍부하고 말소리윙글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표현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정교한 조선어, 조선말을 가지고서는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자유로이 발음할 수 없다. 어떤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조선의 글자는 세계의 다른 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있다.》, 《만일 말과 글로 한 민족의 문화적 도를 전한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문화의 창고에 비견될 것이다. 조선글자는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며 표현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리 글

한 민족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음이 풍부하고 말소리윙글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표현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정교한 조선어, 조선말을 가지고서는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자유로이 발음할 수 없다. 어떤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조선의 글자는 세계의 다른 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있다.》, 《만일 말과 글로 한 민족의 문화적 도를 전한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문화의 창고에 비견될 것이다. 조선글자는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며 표현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리 글

한 민족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음이 풍부하고 말소리윙글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표현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정교한 조선어, 조선말을 가지고서는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자유로이 발음할 수 없다. 어떤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조선의 글자는 세계의 다른 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있다.》, 《만일 말과 글로 한 민족의 문화적 도를 전한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문화의 창고에 비견될 것이다. 조선글자는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며 표현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리 글

한 민족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음이 풍부하고 말소리윙글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표현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정교한 조선어, 조선말을 가지고서는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자유로이 발음할 수 없다. 어떤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조선의 글자는 세계의 다른 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있다.》, 《만일 말과 글로 한 민족의 문화적 도를 전한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문화의 창고에 비견될 것이다. 조선글자는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며 표현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리 글

한 민족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음이 풍부하고 말소리윙글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표현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정교한 조선어, 조선말을 가지고서는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자유로이 발음할 수 없다. 어떤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조선의 글자는 세계의 다른 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있다.》, 《만일 말과 글로 한 민족의 문화적 도를 전한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문화의 창고에 비견될 것이다. 조선글자는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며 표현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리 글

한 민족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음이 풍부하고 말소리윙글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표현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정교한 조선어, 조선말을 가지고서는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자유로이 발음할 수 없다. 어떤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조선의 글자는 세계의 다른 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있다.》, 《만일 말과 글로 한 민족의 문화적 도를 전한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문화의 창고에 비견될 것이다. 조선글자는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며 표현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리 글

한 민족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음이 풍부하고 말소리윙글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표현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정교한 조선어, 조선말을 가지고서는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자유로이 발음할 수 없다. 어떤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조선의 글자는 세계의 다른 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있다.》, 《만일 말과 글로 한 민족의 문화적 도를 전한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문화의 창고에 비견될 것이다. 조선글자는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며 표현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리 글

한 민족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음이 풍부하고 말소리윙글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표현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정교한 조선어, 조선말을 가지고서는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자유로이 발음할 수 없다. 어떤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조선의 글자는 세계의 다른 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있다.》, 《만일 말과 글로 한 민족의 문화적 도를 전한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문화의 창고에 비견될 것이다. 조선글자는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며 표현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리 글

한 민족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음이 풍부하고 말소리윙글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표현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정교한 조선어, 조선말을 가지고서는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자유로이 발음할 수 없다. 어떤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조선의 글자는 세계의 다른 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있다.》, 《만일 말과 글로 한 민족의 문화적 도를 전한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문화의 창고에 비견될 것이다. 조선글자는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며 표현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리 글

한 민족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음이 풍부하고 말소리윙글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표현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정교한 조선어, 조선말을 가지고서는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자유로이 발음할 수 없다. 어떤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조선의 글자는 세계의 다른 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있다.》, 《만일 말과 글로 한 민족의 문화적 도를 전한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문화의 창고에 비견될 것이다. 조선글자는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며 표현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리 글

한 민족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음이 풍부하고 말소리윙글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표현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정교한 조선어, 조선말을 가지고서는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자유로이 발음할 수 없다. 어떤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조선의 글자는 세계의 다른 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있다.》, 《만일 말과 글로 한 민족의 문화적 도를 전한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문화의 창고에 비견될 것이다. 조선글자는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며 표현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리 글

한 민족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음이 풍부하고 말소리윙글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표현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정교한 조선어, 조선말을 가지고서는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자유로이 발음할 수 없다. 어떤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조선의 글자는 세계의 다른 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있다.》, 《만일 말과 글로 한 민족의 문화적 도를 전한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문화의 창고에 비견될 것이다. 조선글자는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며 표현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리 글

한 민족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음이 풍부하고 말소리윙글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표현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정교한 조선어, 조선말을 가지고서는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자유로이 발음할 수 없다. 어떤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조선의 글자는 세계의 다른 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있다.》, 《만일 말과 글로 한 민족의 문화적 도를 전한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문화의 창고에 비견될 것이다. 조선글자는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며 표현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리 글

한 민족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음이 풍부하고 말소리윙글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표현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정교한 조선어, 조선말을 가지고서는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자유로이 발음할 수 없다. 어떤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조선의 글자는 세계의 다른 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있다.》, 《만일 말과 글로 한 민족의 문화적 도를 전한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문화의 창고에 비견될 것이다. 조선글자는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며 표현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리 글

한 민족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음이 풍부하고 말소리윙글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표현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정교한 조선어, 조선말을 가지고서는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자유로이 발음할 수 없다. 어떤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조선의 글자는 세계의 다른 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있다.》, 《만일 말과 글로 한 민족의 문화적 도를 전한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문화의 창고에 비견될 것이다. 조선글자는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며 표현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리 글

한 민족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음이 풍부하고 말소리윙글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표현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정교한 조선어, 조선말을 가지고서는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자유로이 발음할 수 없다. 어떤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조선의 글자는 세계의 다른 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있다.》, 《만일 말과 글로 한 민족의 문화적 도를 전한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문화의 창고에 비견될 것이다. 조선글자는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며 표현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리 글

한 민족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발음이 풍부하고 말소리윙글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표현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정교한 조선어, 조선말을 가지고서는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자유로이 발음할 수 없다. 어떤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조선의 글자는 세계의 다른 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있다.》, 《만일 말과 글로 한 민족의 문화적 도를 전한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문화의 창고에 비견될 것이다. 조선글자는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며 표현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리 글



강수기 작곡가 (왼쪽에서부터 두번째)

삼복의 무더위를 식히며

— 문수물놀이장에서 —



찌는듯 한 삼복의 무더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요즘 문수물놀이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 낮최고기온이 섭씨 37°C 정도 되겠다는 날씨예보에 저도 모르게 가쁜 숨이 나가는 데 사람들이 너도나도 하는 말이 있다.

《문수물놀이장에 갑시다!》

맑은 물 출렁이는 수조며

숫구치는 파도, 시원한 덕수에 특색있는 물미끄럼틀들... 생각만 해도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문수물놀이장이여서 누구나 할것없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평양시민들만이 아니다. 출장이나 나들이는 지방사람들도 평양에 왔다가 문수물놀이장에 가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저마다 문수물놀이장을 찾고있다.

문수물놀이장이 준공된 때로부터 5년이 되어온다. 이 나날 문수물놀이장은 공화국의 각계층 인민들의 마음과 생활속에서 더없이 친근한 곳으로 자리잡았다. 박옥경봉사원은 《우리 문수물놀이장이 준공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일년 사계절치고 언제 한번 오셨는지 않는 때가 없지만 요즘같은 삼복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무더운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더운 야외 물놀이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로 초만원이 이루고있다. 조선시대의 푸른 바다물이 출렁이는 바다물수조에서 파도를 맞받아 헤엄치는 사람들, 바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맞으며 돌아와 웃고 떠



조선민족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이다. 이 민요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귀중한 음악유산이다. 노래에는 우리 민족의 감정과 열정, 슬픔이 그대로 체현되어있다. 지난 세기초에 조선인을 강경화했던 일제는 전인민적인 항거의 노래로 불리워진 《아리랑》을 없애 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지만 조선민족에게서 이 노래를 영원히 빼앗아낼수 없었다.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민요 《아리

조선민족의 대표적 민요 《아리랑》

랑》은 고유한 민족특색을 살리면서 세기를 이어 널리 불리워졌다. 이 노래를 종자로 한 대 집단체제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떨치고 세인을 경탄시켰으며 주체96(2007)년 8월에 기니스세계기록에 등록되었다. 유네스코는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의 민요 《아리랑》이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 대표적 목록》에 등록된 소식을 담은 글에서 《아리랑은 가정과 친우들, 집단에서뿐 아니라 중요계기와 명절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기에 불리워지고있는 대중적 민요이다. 아리랑은 구두로 전해지

며 재창조되는 과정을 통하여 수많은 전통형식과 관현악, 현대음악형식으로 존재하고있다. 아리랑은 주로 부드럽고 서정적인 선율속에서 리얼과 상분, 슬픔과 기쁨, 행복에 대하여 노래한다. 아리랑은 사회적관계를 보다 공고화함으로써 호상존중과 평화적사회발전 에 기여한다.》라고 소개하였다. 민요 《아리랑》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민족의 자랑이다. 리성남

술가락을 입안에 넣고 혀 끝면의 침을 묻힌다. 다음 투명한 비닐봉지에 술가락을 넣고 햇빛 또는 전등빛에 1분동안에 놓아두었다가 검사해본다. 술가락에 얼룩이 없으면 폐한 냄새가 나지 않으면 내장기능장애가 정상이라고 불

1분동안에 자기의 건강상태를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

수 있다. 그러나 매우 심한 썩은 냄새가 나는 경우 폐 또는 위에 병이 생겼다는것을 의심할수 있다.

또한 달콤한 냄새가 나는 경우 당뇨병을, 달걀썩은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곰팡이 병이 생겼다는것을 의심할수 있다. 본사기자

금해진 나머지 말고베어나 제대로 못당겨 땅바닥에 끈 두발질했으니 이 무슨 망신인가. 죽장과 부하들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치며 호위군사가 말했다. 《저, 샘터에서 잠깐 쉬고 내려가시오이다.》 환웅은 잠자코 호위군사가 이끄는대로 샘터로 향했다. 그곳에 이른 환웅은 갈증도 나고 시장기도 느껴지는지라 호위군사가 떠주는 샘물을 몽땅 풀어 샘터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싸서 그물과 바줄을 새까맣게 던지는거라구.》

사화 령마를 길들인 소년 (3)

글 황원철, 그림 김영희

사슴목처럼 곧추 일어난 긴목, 아침이슬을 머금듯 기를기나 번지르르 흐르고 힘살이 팽팽한 잔등과 앞가슴, 다발출우를 건너렷 때마 다 발굽에서 흔들리는 흰갈기털... 참으로 이루 형언할수 없는 우아한 모습이었다. 샘터로 내려오는 길은 오직 한가닥밖에 모르는지 야생마는 젊은이가 알려준 그 길목에 어김없이 들어서더니 곧장 환웅이 숨어있는쪽으로 걸어나오는것이였다. (이제 조금만 더!) 하고 환웅이 속으로 뇌이며 마른 침을 삼키는데 갑자기 야생 말은 무슨 기척을 느꼈는지 걸음을 멈추고 긴목을 뻗듯이 추켜세웠다. 긴장한 순간이 흘렀다. 한참동안 주위를 살피보던 야생마는 다시금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허나 무척 불안스런지 발굽을 옮기는 모양이 몹시 조심스러웠다. 어느덧 야생마는 첫번째 장수가 숨어있는 나무 밑에까지 이르렀다. (됐다!) 환웅이 속으로 쾌재를 울리는 순간 나무우에서 검은 형체가 소리없이 말잔등으로 떨어져내렸다. 미리 죽장의 령을 받은 장수가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몸을 날린것이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야생마는 그 자리에서 튕겨나더니 손살갈이 앞으로 내뒹겼다. 말이 있던 자리에서는 쿵 하

는 소리가 울렸다. 야생마의 동작이 얼마나 빠르니 첫번째 장수가 그만 놓쳐버리고 만것이였다. 뒷발의 일을 당한 야생마는 네굽을 안고 샘터길을 따라 곧추 달려내려왔다. 야생마가 다음 나무밑을 통과할 때 말의 머위로도 또 다른 검은 형체가 손살갈이 날아내렸다. 거기에 숨어있던 두번째 장수가 이번에는 정신없이 달아오는 말의 앞쪽을 겨누어 뛰어내린것이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령리한 그 말이 방향을 옆으로 휩쓸며 앞으로 달려나오는 바람에 그 역시 말머리에 손도 대보지 못하고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말았다. 《저런, 구실 못할것들이라구야.》 다음처럼 환웅은 옆에 대 키시켜놓았던 자기 말에 제빨리 올라탔다. 그리고는 제 짝을 휘둘러 야생마를 추격하며 목청껏 소리쳤다. 《주의하라— 말이 간다.》 야생마가 뛰는 앞쪽에는 그가 이때를 예견하여 메복시켜놓은 군사들이 있었단것이였다. 죽장은 새처럼 질주하는 야생마의 앞쪽 광경에서 군사 두명이 벌떡 일어나며 각각 두손을 앞가슴에 올리고 마치 출당기름을 하는것처럼 서로 반대편쪽으로 힘

모르겠더니 어둠이 가셔지기 시작한 청계골안은 그림같이 아름다웠다. 넓은 새벽안개가 잠든 골짜기를 부드럽게 이루어만져 깨우듯 이리저리 굽고있는데 온갖 이름모를 새들이 이슬방울들이 령롱한 나무잎새들사이에서 제각기 침침고운 목소리들을 한껏 터치고있었다. 죽장 환웅이 환둥안 끝안의 유정함에 심취되어있는데 곁에서 두 장수가 말소리를 버리는 소리가 들렸다. 《별수없어, 군사들을 몽땅 풀어 샘터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싸서 그물과 바줄을 새까맣게 던지는거라구.》



《어— 못말 좋다. 파시 신선이 마신다고 할만한 샘물이로군.》 정말 샘물은 들떠나 그대로 참 달고 시원했다. 물 한그릇을 다 마셔버린 환웅은 젓은 입술을 훑으며 주변풍경을 둘러보았다. 간밤에 올라왔을 때는 잘

민족전통의 우수성을 계승발전시켜

—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 —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는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유산들을 계승발전시켜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보다 활발히 벌리고있다.

특히 국가비물질문화유산들에 대한 발굴과 보호사업을 통하여 사람들속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고상한 정신세계를 귀중히 여기고 더욱 살려나가기 위한 애국심을 불리우고있다. 박무송 민족유산보호지도국 비물질부처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화국의 비물질문화유산의 보존과 발굴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그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안에 비물질문화유산의 보호와 등록 등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해당 부서가 조직되어 얼마되지 않았지만 많은 국가비물질문화유산들이 등록되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이 세워졌다고 하였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유산들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애국사업이라

고 하시면서 비물질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등록하기 위한 전문부서를 내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셨다. 지난 기간에도 비물질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어왔지만 구체적인 체계와 내용으로 분류되어 진행되지 못하였다. 박무송부처장은 《비물질문화유산이라는 표현도 지난 2003년 유네스코가 진행한 《비물질문화유산보호를 위한 2003년 국제협약》(일명 파리협약)에서부터 광범하게 불리우게 되었다.》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심화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이 창조한 비물질문화유산들은 수없이 많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조선시음, 조선장기, 신선로, 평양맹면, 태권술칠공예, 조선화기법, 고려청자공예 등 그 종류가 헤아릴수 없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얼마전 우리 민족의 민요인 《아리랑》이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만 농고교야도 우수한 민족전통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공화국에서는 비물질문화유산발굴과 보호를 위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정연한 체계에 따라 진행하고있다. 모든 도와 시, 군, 리들에 해당 지역의 비물질문화유산보호사업을 맡아 수행하는 전문직제를 내오고 이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화하고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된 비물질문화유산상들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사업과 함께 중앙과 지방들에 조직되어있는 각급 민족유산보호조사들을 통해 비물질문화유산들의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장악지도사업, 비물질문화유산보호사업과 관련한 연구토론회와 축전, 전시회를 여러 계기에 조직진행하고 각 출판보도기관들과의 연계밑에 비물질문화유산들에 대한 소개선전사업을 벌리고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속에서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함께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애국심을 불리우고있다. 얼마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물질문화유산을 상징하는 마크를 새로 제작하여 국가 및 지방비물질

문화유산등록증과 비물질문화유산보호사업과 관련한 문건, 비물질문화유산과 관련한 연구토론회와 전시회의 헌시를 등에 리용하고있다. 라오르는 불경을 두손을 형성한 《비》자는 오랜 세월 우리 선조들이 창조하고 계승발전시켜온 비물질문화유산을 상징하고 《비》자를 감싸고있는 타원에는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비물질문화유산이 끊임없이 보호발전되고있다는것을 상징하고있다.

최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설립되어 국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해외동포, 다른 나라 단체와 국제기구, 개별적인 사들로부터 력사유적과 유물, 비물질유산의 발굴과 고증,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의 보존, 력사박물관과 유적지들에 대한 복원과 보수 및 개건, 해외에 류출된 력사유물의 반입 등 필요할 력사자료와 유물, 문자, 자금을 기부받아 민족유산보호사업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고도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찬란한 력사를 빛내이는 애국사업에 힘과 지혜를 아낌없이 바쳐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강류성



역사유적과 궁정. 일제의 야만적행동에 격분한 인민들은 1937년에 폐궁정을 지금의 위치에 옮겨다 현상 그대로 다시 세우고 보존해왔다. 지금 있는 폐궁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익공식두루에 활죽지붕을 한 두루정이다.

기둥은 두리기둥이며 돌레에 10개의 긴 기둥을 세워 1, 2층 기둥을 겹치게 하였다. 현상 그대로 다시 세우고 보존해왔다. 지금 있는 폐궁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익공식두루에 활죽지붕을 한 두루정이다.

제 취어 아름다운 주변의 풍경과 잘 어울린다. 두루정의 기둥 중허리에는 널마루를 설치하였다. 마루는 기둥과 기둥사이에서 굽은 대창, 소창을 건너대고 거기에 널판자를 깔았다. 폐궁정은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로동과 재능, 애국심이 깃들어있는 귀중한 력사 유적으로서 훌륭한 보존관리 되고있다. 본사기자

있었다. 당장 혼자서 그 말을 잡아 내것으로 만들고 말지.》

군사들이 웃먹으로 입을 막고 킁킁 웃었다. 환웅은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시라, 그 말은 항간에서 이르는 말대로 령마일이 틀림없다. 신선이 내린다는 청계골에 신선이 마신다는 샘물을 마시러 내려오는 말이 령마라 분명하다. 신령스러운 말이 우리 고향에 나타난것은 참으로 기할 창조이거늘 이는 하늘이 우리 박달족에게 내린 은총이나라. 이제부터 령마가 있는 이 골안을 사람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단속해야겠다.》

철없는것들이 말을 놀래워서 달아나기라도 한다면 이것은 하늘이 내린 은총을 저버리는것으로 필진대 엄히 신칙하도록 해라.》 환웅의 호령이 온 골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이후 박달족사람들속에서는 신비한 령마에 대한 소문이 더욱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다. 《생각할수록 환웅은 아들의 소행을 리해할수 없었다. 물론 어린 나이에 령마를 구경하고싶은 생각이 그럴수 있다고 할수 있지만 그것도 하루이틀이지... 더구나 단군은 장차 종족장인 자기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중임을 걸머져야 하거늘 어찌 그렇게도 철없이 놀아대는걸가.》 환웅은 당장 단군을 찾아가 부끄를 단단히 가르쳐주리라 작심했다.

합각지붕을 이룬 톱마루, 박공마루, 누너마루의 선들과 지붕면들은 모두 완만하고

본사기자

우리의 민족의 무궁무진하고 우수한 차문화

술기쁨과 지혜로운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창조하고 향유하여온 음식문화중에는 유구함과 독특함으로 하여 자랑높은 차문화도 있다. 우리 선조들은 세나라시기부터 차나무재배를 장려하면서 차를 즐겨 마시었다. 고려시기에 와서 차문화는 더욱 발전하였다. 고려에는 차의생산과 조리, 판매 등 차와 관련한 행정실무를 보는 《다방》과 같은 국가적인 관청까지 있었다. 당시 왕궁에서는 《다례》라고 하는 차마시는 행사도 자주 진행되었다. 또한 차는 국가의례행사에서도 안될 중요한 음료로 취급되었다. 《고려사》를 비롯한 력사기록들에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다. 고려사람들은 차잔과 차끓이는 도구들도 발전시켰다. 차잔으로서의 고려청자기의 특성을 잘 살린 비색자기차잔을 많이 리용하였다. 독특한 맛과 향기를 가진 고려차를 비색자기차잔에 부어마시는 것은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었다고 한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차문화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발전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실록》에는 우로는 왕궁과 아래로는 시골에 이르기까지 차마시기가 계속 이어져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있다. 우리 선조들은 약효성분이 많은 인삼차, 결명차, 보리차, 생강차들을 즐겨 마시었다. 조선봉건왕조후기에 나온 책인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우리 선조들이 즐겨마신 차로서 매화차, 국화차, 포도차, 생강굴차, 당귀차, 협두차(공차), 보리차, 누룩차, 오미자차, 구기자차, 감나무잎차, 배추차, 인삼차 등 여러가지 이름의 차가 기록되어있다. 당시 우리 선조들은 다섯가지 과일도 만든 차와 결명차차, 차나무의 싹으로 만든 작설차 등을 최고급의 차로 일러주었는데 이러한 차들은 이웃나라들에서는 보기 힘든것들이었다. 본사기자